

<거리의 만찬> 속 기상청 사람들

야근할 때였습니다. 야근자의 자리 근처엔 텔레비전 5대 정도가 늘 켜져 있습니다. 놓친 뉴스는 없는지, 돌발 상황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정규 뉴스가 다 끝난 시간, 한숨 돌리려는데 제 눈길을 끄는 화면이 있었습니다. 기상청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KBS <거리의 만찬>이었습니다.



기상청 사람들 <거리의 만찬> 주인공이 되다

“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왜 틀려요?” “일본 예보가 더 잘 맞는다면 서요?” 출연한 연예인들이 질문합니다. 궁금해서 잠이 안 올 정도는 아니었지만, 저도 알고 싶은 대목이긴 했습니다. 가끔 주변에서 “기상청 체육대회날 비가 온다며”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웃어 넘겼지만 뭔가 계기가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긴 했거든요. 이때부터 소리도 좀 키워서 집중해 봤던 것 같습니다.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귀에 쑥쑥 들어왔습니다.

그래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고요? 솔직히 방송을 볼 때는 ‘아, 그렇구나.’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습니다. ‘슈퍼컴퓨터도 당연히 틀릴 수 있지, 지금은 우리 예보가 더 정확하지.’ ‘지난 5월 간 담회 때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관련해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, 그러면 좀 더 세밀한 예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.’ 정도의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.

한 번의 빗나감, 그 혹독한 대가

오히려 방송을 보고 난 직후엔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예보 업무와 별개로 선입견과 맞닥뜨리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난해 태풍이 예보와 달리 수도권을 통과하지 않아 많은 항의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보면서요. 기상청의 전체 예보는 정확한 편이지만, 사람들에게 그 한 번의 ‘빗나감’이 크게 느껴지면서 기상청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진 것이겠죠. 그런 경험이 한 번, 두 번 쌓이면서 이미지가 굳어지고요.



강은지
동아일보 기자



그날의 방송은 딱 저 정도의 생각만 제게 남기고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. 전 그 뒤에도 장마 전선이 북상할 때, 수도권이 더울 때 수시로 기상청 대변인실에 연락해 궁금한 걸 여쭙고 기사를 썼습니다.

다시 방송 내용을 떠올린 건 제5호 태풍 ‘다나스’ 북상으로 바빠졌을 때였습니다. 기상청에선 1시간 간격으로 ‘다나스’ 관련 방재 속보를 발표하고, 아침 일찍부터 정리된 내용을 전달해왔습니다.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, 기상청을 오래 출입한 기자들에겐 익숙한 일일 겁니다. 또 당연한 일이겠죠. 태풍, 장마, 지진, 폭설… 기상 관련 정보를 수시로, 제대로 전달하는 게 기상청의 소명이니까요.

불안하지 않은 예보

그러나 방송을 본 후 제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.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. 누군가는 또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갔고, 누군가는 또 집에서 싸준 삶은 계란으로 간단히 요리를 했겠지요. 역시나, 대변인실도 주말 내내 근무하는 모양입니다.

또 회사에서 “다나스 예상 경로가 일본 기상청 예상과 다른데 왜 그런거야?”라고 물어봤을 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 예보가 허술하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달아서 일겁니다.

태풍과 장마와 폭염으로 바쁜 계절이 왔습니다. 언제나 그렇듯 예보가 달라지면 항의가 쏟아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그 날의 방송을 본 누군가는 기상청을 믿고 여러분의 수고를 떠올릴 겁니다. 저처럼요. 그러니 조금 더 기운 내서 이번 여름도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더 좋은 날씨 예보를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. ☺